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이장우 "열혈청년 오자룡 기대해주세요"

MBC '오자룡이 간다' 내달 방영

내달 시작하는 MBC TV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에서 '오자룡' 역할을 맡은 이장우(26) <사진>는 "이런 날이 오네요"라면서 "무엇보다 제목을 들었을 때 느낌이 아주 좋았고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격 발탁됐고, 더구나 상대가 대선배이자 스타인 김선아였다.

하지만 '아이두아이두'는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고 전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다.

"도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싶었고요. 그때 김선아 누나가 상심감에 빠져있던 절 끄집어내 주셨어요. 누나의 조언을 통해 과도한 부담감이나 욕심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타이틀을 틀리고, MBC 일일극이라는 점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했지만 전 오히려 의연해요. 시청률이야 잘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제가 연기자로서 좋은 연기를 보여 줄 수 있다면 만족하려고요."

그가 맡은 '오자룡'은 어떤 인물일까. "지방대를 나왔지만 취직은 안 돼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 백수예요. 자신도 세고 정의감도 넘치는 열혈청년입니다. 얼마 전 고층빌딩 창문을 뚫는 연기를 했는데 여쭙 다리가 후들거려 죽을 뻔했어요. (웃음) 몸으로 부딪히면서 많은 일을 하는 캐릭터라 많이 바쁩니다."

그도 '성공'과 '시청률'에 강한 욕심이 있었다. 전작 '아이두아이두'를 시작할 때는 특히 그랬다. 미니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으로



한편 끝내면 녹다운이 되지만 하루 이틀만 폭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아이두아이두' 끝나고 4개월 됐는데 진짜 많이 쉰 거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강호동 복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내달 10일 SBS TV '스타킹'으로 1년여 만에 방송계에 복귀하는 강호동(42) <사진>이 첫 촬영에 앞서 복귀 소감을 밝혔다.

호동은 녹화에 앞서 "복귀하는 마음보다는 오늘 처음 데뷔하는 신인의 자세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촬영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 사랑받는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강호동은 지난해 9월 세금 과소 납부 논란에 휘말리자 잠정 은퇴를 선언,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子, 丑, 寅, 卯, 辰, 巳. Rows for each zodiac sign listing birth years and fortune prediction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What do you think of this city?' and '豚蹄一酒(돈제일주)'. Includes English text, Korean text, and a table with columns: <동아 외국어학원>, <대능교육>,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對台戏 duitáixì' and '家賃はいくらですか?'. Includes Chinese text, Korean text, and a table with columns: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